

‘KREI리포터’ 제주지회 간담회 결과

1. 개 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및 리포터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 일 시: 2017년 12월 26일(화) 18:00~21:00
- 장 소: 현동석 회원농가 ‘굴이네’ (제주 제주시)
- 참 석: 총 8명
 - 제주지회 리포터(8명): 고정홍, 김애자, 부정선, 강천관, 강창용, 현동석, 고권진, 고정식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8:00~19:00	견학	희망을 키우는 농부(굴이네)
19:00~20:00	저녁식사	칠돈가
20:00~21:00	간담회	현장여론 논의

2. 주요 논의 내용

- 희망을 키우는 농부 ‘굴이네’ 소개
 - 현동석: ‘굴이네’에서는 최근 11월 첫 팜파티를 개최하였음. 마을 주변 관광객들의 자주 찾는 곳에 포스터를 부착, 과수원 방향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으며 굴따기 체험, 음악 공연 등을 준비하고 체험객을 위한 포토존과 쉼터를 마련, 마음을 담아 작은 답례품도 준비했음. 이번 팜파티는 대한민국 스타팜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농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국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음. 관광객과 주변 지인, 유치원생을 초대를 하여 행사를 진행하였고, 성황리에 마쳤음.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감귤을 이용한 비빔국수와 양념치킨을 중식 대용으로 시식, 굴이네가 자랑하

는 감귤 빙수 만들기 체험, 미스터잼 배필성씨를 모시고 감귤 잼과 감귤 케첩 만들기 수업을 3시간 가량 진행, 감귤 찹쌀떡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기획하였음. 첫 팜파티였던 만큼 힘들고 실수가 많았지만 호응도가 좋았고, 감귤 구매와 체험비 수익 등으로 앞으로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됨.

○ 제주지역 현장여론 수렴

- 고정홍: 우리 마을 대평리는 산과 계곡, 바다가 어우러져 마을이 아름답다고 금방 입소문이 나서 이제는 외지인이 60%가 넘었음. 외지인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농지를 사들이고 게스트하우스, 민박, 카페, 펜션을 지어서 영업하고 있는데, 점차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음. 우선 차량 통행이 늘어나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문제가 심각해졌으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 외지인과 갈등 없이 제주를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현동석: 우리 농업은 식량조달의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경관 제공, 각종 체험활동 및 교육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까지 체험프로그램이 있는 농원을 방문하는 일이 빈번함.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넓은 목장이 있는 농장에 방문해 자연경관을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도 하며, 스위스에서는 푸른 목초지에 면적당 마릿수를 제한하여 젖소를 방목해 키우면 그에 따른 혜택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함. 이처럼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심신 안정의 효과는 농촌의 가장 큰 공익적 기능이라 생각함.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을 단순히 생산기반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다원적·공익적 해석을 통해 그 가치를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좀더 우리나라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람.
- 고정식: 겨울철에도 밭에는 푸름을 간직한 제주도 농촌 밭에는 월동 무, 당근, 감자, 취나물, 유채나물 등을 수확해서 육지(대도시 공판장)

로 보내는데 단순 노동이다 보니 서로 말없이 일을 하고 있음. 그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임.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여겨지는데 일은 곧 잘하는 편임. 이분들이 없으면 일할사람이 없어서 농촌에는 농작업이 절대 불가능해질 것임.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을 쓰려고 해도 힘들다는 핑계로 기피를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임. 중국인들은 어느 숙소에 모여 살면서 일을 하러 다니는데 불법체류 단속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행방을 감추어 예정된 작업이 있는데 납품을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안정된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법이 제도화 되어주기를 바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면 제주에 농업기반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큼.

- 고권진: 지난 2016년의 적정생산량은 390만 톤인데 반해 과잉생산분은 30만 톤이었고, 쌀의 의무수입량이 40만 9천 톤이었으며, 매년 이자처럼 의무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음. FTA 등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농업의 생산기반을 무너트리는 한편, 곡물 수출국의 이상기후로 인하여 국제곡물가격이 2~3년 주기로 급등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음. 농업은 공익적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더 늦기 전에 과감한 변화를 해야 할 것임. 정책변화의 모델로 제주감귤 산업을 예로 들 수 있음. 2000~2001년 감귤재배 면적이 25,207ha에 78만 8천 톤이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에도 못 미치던 때가 있었는데, 온 도민이 1/2 간벌, 감귤원 휴식년제 도입, 부적지 폐원, 타 과수로의 전환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고품질의 과실 생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4년부터는 예년 수준의 가격을 회복하고 지금은 45만 톤 내외 생산으로 비교적 가격안정을 이루었음. 예전에는 면적과 수량이 자랑거리였다면, 지금은 얼마나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해냈는가를 자랑거리로 삼게 되었음. 이와 같이 수매만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변화해야 할 것임.

- 강천관: 농산물을 소포장하고, 가격을 줄여나가니 제값에 판매할 기회

를 놓치고 있음. 공직자 외에 일반국민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로 농산물 소비를 매우 위축하고 있음. 3만원, 5만원 규제금액 자체가 족쇄처럼 느껴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상한 금액을 높여주기 바람.

3. 이모저모

